

해체주의 건축양식과 현대패션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mporary fashion and deconstructive architecture

세종대학교 대학원 의상전공
대학원 김혜정

Dept. of Home Economics, Sejong Univ.
Doctoral Student : Hye-Jeo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해체주의건축의 구성형태에 따른 패션 |
| II. 현대건축에서의 해체주의 | IV. 결론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formal constructions of deconstructive architecture in the contemporary fashion expressed as intertextuality, difference and trace and the working of DIS and DE, and intertextuality in deconstructive has manifested itself as the intertextuality of material, hybridization of items, the blending of modes and the bi-sexuality of sexes. And the difference and trace found in fashion are fantastic and playful and come to exist as historicity.

DIS and DE in fashion shows the retrogression of gravity through non-structural silhouette.

Their disentring expression emerged as construction through mixture and repetition as well as overlapping of planes or spaces. And their disjunctive representation appeared in the form of mutual juxtaposition and substitution with the double-side of formal construction in fictional terms.

I. 서론

인간의 미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시대, 인종에 따라 달라진다. 딘(Dean)은 '어떤 시대 어떤 집단이 만

들어 낸 건축공간은 규모, 형태, 구조 등에서 그것을 특징짓는 통일적인 표현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양식이다.'라 하였고 이러한 양식은 회화, 조각, 가구, 무용 등에 나타난다 하였다. 양식이 인간의 창조

성과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복과 건축은 시각적 예술로서 조형언어라 할 것이다. 특히 골드핑거는 건축을 회화적 또는 조소적 표상과는 다른 것으로서 인식하여, 조소적 또는 회화적 표상은 정적(靜的)으로 외부에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반해 공간적 시각표상으로서의 건축은 운동적이라 하여 내부에서 잠재의식적으로 인식한다하였다.²⁾

키고 있는 일련의 문화현상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건축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의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가 현대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부정하는 다중구조적인 인식 체계를 갖게 하였다.

사이트 아키텍트(Site Achitect) 소속의 건축가들이 1972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위치한 '우수제품 전

회화적	조소적	공간적
2차원(평단적)	3차원(凸상)	3차원(凹상)
정적	실체영상적	운동적
외부에서 의식적으로 인식된다.	외부에서 의식적으로 인식된다.	내부에서 잠재의식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은 의복이 그 시대의 미적가치 내지는 사상, 정신, 정서를 반영하며 삼차원적 인체위에 조형미를 갖추어 공간적으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건축과 의복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1952년 이후 미국 비트(Beat)에서 발아한 일련의 경향들이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사회적으로 기존체제에 대한 배전(排戰)을, 그리고 미학적으로는 이미 전통의 권위를 획득한 본격 모더니즘에 투항하는 새로운 전위운동을 뜻한다. 그 예로 예술계에서는 사진식 리얼리즘, 신표현주의, 핑크, 뉴 웨이브, 실험영화, 비디오 등 대중성이 강조된 경향들과 존 케이지, 마르셀 뒤샹, 앤디 워홀, 문학에서는 바블미 등이 주동자로 나타나 다양성과 공존성, 대량복제, 모조성 등이 사회적으로 반영되었다. 이것들은 복합매체적 사건, 행위 즉 거리극, 즉흥극, 열린형식의 혹은 우연성에 근거한 미술과 글쓰기. 그리고 새로운 행동적 전위주의, 최근의 일명 뽀뽀소설 등과 같이 청년문화와 대중적 현장의 사건들을 진지한 것으로 여겨 온 예술의 세계에 접목시

시관'을 정면의 벽이 마치 허물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고의적 미완성으로서 파괴, 정치한 순결성을 보여주었다.³⁾ 색채에 있어서는 찰스 쟁크스(Charles Jenks)가 설계한 캘리포니아 소재의 도메스틱 커미션(Domestic Commission)에서 보듯 포스트모던의 연계내에서 전형적인 초현실적인 암시와 색을 사용하였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 구조주의와 상관성을 갖는 해체주의 이론은 서구적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서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구조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였다.⁴⁾

패션에 있어서는 실용성의 문제로 인해 철학이나 건축에 있어 해체이론이 패션의 심층구조나 형식논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패션이 그 시대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커다란 문화적 요인으로서 자리하고 여타 현상들에 영향을 주고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련의 전위적 디자인어들에게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밝힘으

1) Bruno Zeve on Modern Architecture, Andrea Oppenheimer Dean, 김란기 역, 대전당, 1992, p.23.

2) 宮川英二, 문석창 역, 건축적 공간, 지문당, 1987, p.99.

3) Penny Sparke, 현대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1994, p.196.

4)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이광래 편, 교보문고, 1989, p.372.

로서 패션의 예술성과 조형성의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에 나타난 패션 경향을 중심으로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의 해체주의 건축이론을 현대 패션에 접목시켜 건축의 구성형식으로서의 해체주의 패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현대건축에서의 해체주의

1. 해체주의 이론과 건축

1) 해체주의 이론

해체주의는 단일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여러 현상들을 포함한다. 플라톤 이후 서양철학이 철학과 문학, 이성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 등의 이분법적 논리에 대항하여 언어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있다. 즉,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위해 결과가 예정된 목적론적인 계획을 추구하지 않으며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기존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해체주의에 나타난 것은 표면적 불안정을 통해 기존의 조화, 통일, 안정성과 같은 가치에 도전하는 것으로 본원적인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다.⁵⁾

이러한 논리는 건축에 반영되어 건축의 그 자신의 해체를 위해 기존의 정의와 개념을 해체하고 해체이론의 주요 논리인 상호 텍스트성(Inertextuality), 차연(Différance), 부정성의 원리(DIS와 DE) 등을 형상적 언어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건축논리인 질서, 기하학, 축, 기능, 실용, 공간 등의 용어에 대응하여 무질서, 의미의 부확정성, 형태의 왜곡, 축의 중첩, 무목적적인 공간, 과장된 형태 등을 구사한다.

즉, 해체주의 건축은 구조 규칙의 파괴, 의미고리의 붕괴, 주체의 소멸의 논리 등이 반영되어 극도의 추상성, 해석 불가능성으로 귀결되어지며 그 형태는

리는 탈 장르현상이나 형태 혹은 의미의 중첩 등으로 나타난다.⁶⁾

2) 해체주의 건축

해체주의 건축의 형성배경에 대해 두가지 관점이 있다. 그 하나는 네덜란드의 건축가 그룹인 OMA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의 리더격인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형태를 인용해 서구에 다시 부활시키면서였다. 그 후 1979년 파리-모스크바전, 1982년 라빌레뜨 공원(La Villette) 현상설계에서 베르나르 츠미의 작품에서 나타난 구성주의의 영향과 여러 전시회를 통해 러시아 구성주의 또는 절대주의의 디자인 형태의 작품이 나타나면서 신구성주의 (Neo - Constructivism)라고 불려지면서 해체주의 건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건축개념이나 프로세스에 난해한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의 해체주의 이론을 도입하여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과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 등이 건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다. 1988년의 영국의 런던 테이트 갤러리(London Tate Gallery)의 '건축에 있어서의 해체'라는 심포지움에서 해체에 관한 철학적 토론과 함께 건축 및 시각예술, 회화 및 조각 등 예술전반에 걸친 논의가 되었고 그해 6월에는 MOMA(The Museum of Modern Art;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구성적 해체주의 건축이라는 전시회가 열렸으며 그 이후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소위 건축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포스트모던 건축 이후로 가장 주목받는 건축경향이 되었다.

데리다는 해체와 건축적 사고와의 관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건축적인 사고는 철학과 건축과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 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만이 해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⁷⁾라 하였다.

5) Philip Johnson & Mark Wigley, 해체주의 건축, 도서출판 전일, 1991, pp.8~18.

6) 서윤주, 해체주의 건축의 철학적 수용과 체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4.

7) 조진일,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19~21.

2. 해체주의 건축의 구성 형태

1)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예술행위의 형태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⁸⁾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 속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텍스트로서 간주된다.⁹⁾ 상호텍스트성이란 차연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일정한 기호체계로서 표현성이 일정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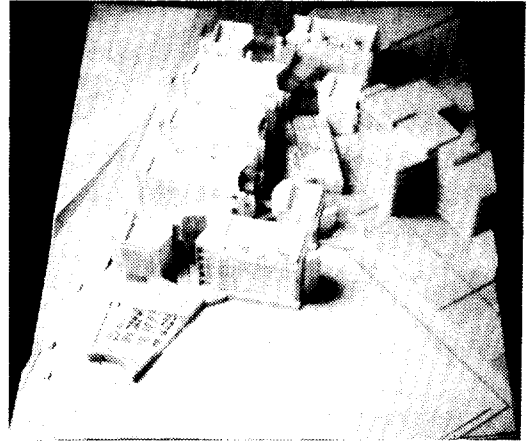
건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상황의 건물, 혹은 음악, 철학, 생물, 회화 등의 타영역과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태와 기능, 공간과 행위, 구조와 의미 사이의 명확한 개념은 분열되고 충돌로 전이된다.¹⁰⁾

〈사진 1〉은 프랑크푸르트생물학 연구소로 생물학의 텍스트 구성으로서 DNA를 건축의 텍스트성으로 CAD와 기하학을 이용한 두 텍스트 사이를 상호 텍스트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병행인용이라고도 하며 양쪽 모두를 참조함으로써 중간적 영역에 입지하여 의미유보를 유도하는 경직성으로 부터 탈피하는 것이다.¹¹⁾ 또한 텍스트의 자율성은 거부되어지고 해체주의의 예술행위의 형태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

건축에서의 중첩은 동시성, 침투성, 시공, 투명성, 중합, 다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중첩과정을 통해 각각의 요소는 원형과 다른 형태미로서 창출되거나 의미가 혼합되어 재구성된다.¹²⁾

여기에는 회화적 의미로서 콜라주(Collage), 파피에 폴레(Papier Colle), 앓쌍블라주(Assemblage)가 있으며 특히 콜라주 기법과는 달리 각각의 오브제에



〈사진 1〉 Peter Eisenman, Bio-centrum, Frankfrut-am-Main, Deconstruction, 1989, p.159.

의미가 부여되어 그 의미들 사이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몽타주 기법 등이 있으며 건축에서 중첩성이 방향성과 전환성 등의 의미의 중첩으로 나타난다.

2) 차연과 흔적(Différance & Trace)

건축은 필연적으로 과거와 연관되어서 존재하는데 이것은 데리다의 해체이론 중 흔적, 차연의 개념에 뒷받침 된다.

(1) 差延(Différance)

차연이란 차이와 같은 말로서 데리다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종래에는 차이와 같음이 이항대립관계를 이루어 온 것이었으나 차이를 따질 때 같음이 전제되어지고 같음에 주목할 때 그 곳에는 이미 다름이 전제되어져 일체의 차이와 동일성을 생산해주는 기능을 말한다.¹³⁾ 그럼으로써 차연은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는 것으로 지연작용, 연기하는 것, 붙잡아두

8) 김원갑, 현대건축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98~199.

9)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20.

10) 서윤주, 앞의 책, p.54.

11) 변계성,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35.

12) 남형우,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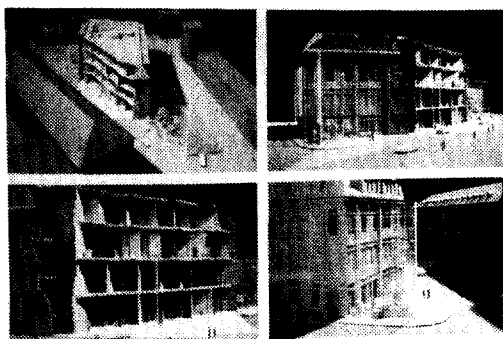
는 것, 하나가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존재물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이들의 유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의미에서도 하나의 단순한 요소가 자신만을 참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종합과 참조의 행위이다. 이는 해체주의 건축에서 이질, 단편, 불일치, 이동, 거리, 틈, 분리, 전위, 발굴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¹³⁾

차연의 개념을 통해 모든 불변의 의미는 제거되어지고, 따라서 건축은 각각의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현되어지는 형태에서도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때론 형태의 유희로 나타난다.¹⁵⁾

(2) 흔적(Trace)

모더니즘이 맥락의 단절을 주장하고 이에 대응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맥락의 연속을 주장한 반면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흔적에 의한 불연속적인 겹침을 주장한다. 이는 아이젠만에 의해 발굴행위라 칭해지는데 이것은 역사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의 흔적들의 집합체이며 동일한 공간에 발생한 사건들



〈사진 2〉 Site, Frankfurter Museum of Modern Art, Deconstruction, 1989, p.139.

을 기억의 단편으로서 나타내는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는 파괴된 건물의 벽면을 통하여 프랑크 프르트시의 2차 대전 중 도시 파괴의 역사와 시간의 공간화 공간의 시간화를 보여주는 사이트(Site)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서 차연과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3) DIS와 DE의 작업화

아이젠만과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 탈 고전주의, 탈 구성, 탈중심, 불연속 등과 같은 부정성의 이론과 실재로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¹⁶⁾ 이러한 디자인의 원리는 분열, 분해, 탈중심, 전위, 변위, 분산 등으로 설명되며 이는 과거에 행하던 원형 지향적인 통일성을 버리고 해체라고 명명되는 다양한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의미한다.

탈구성의 개념은 동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해체의 개념이다.¹⁷⁾ 이 부정성의 작업화는 전위(Dislocation)로서 대지(大地)의 부정인 반동력적(Descentring)인 형태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1) 탈구성적 표현

탈구성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해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이는 하나의 분석적 도구이며, 조작 가능한 오브제의 참조 과정이나 물리적 특징에 대한 특정한 자세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관계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무작위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 즉, 질서라고 알려진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설계과정은 변형(Transformation)을 통해 이루어지나 단순한 변형의 영역을 초월한 무의식적 설계가 변형만을 통해 전개될 수 없는 이미지의 질서, 근원을 탐구하는 것으로, 탈구성은 전통적인 디자인의 설계과정의 역을 취한다.¹⁸⁾ 따

13) 서운주, 앞의 책, p.54.

14) 서운주, 바로위의 책, p.58.

15) 조진일, 앞의 책, p.18.

16) C. Jencks, The Pleasure If Absence, Deconstruc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9, p.119.

17)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82.

18)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라서 탈구성의 개념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해체이론과 공유되는 점이기도 하다.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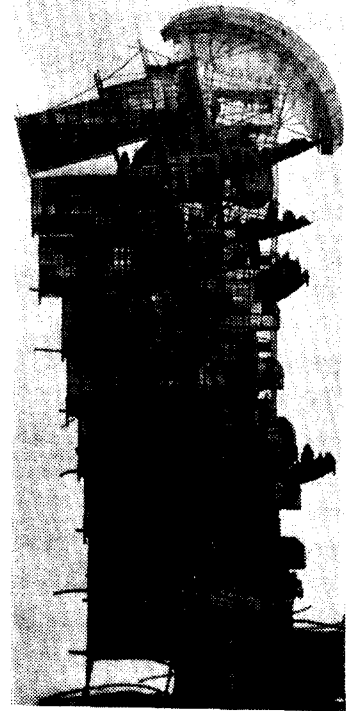
<사진 3> Bernard Tschumi, Le Parc De La Villette, Paris, France, Theory + Experiments, 1993, p.371.

(2) 탈중심성, 탈중력성의 표현

수직, 수평성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중력작용의 왜곡을 위해 기본 구성요소의 방향성과 다른 것으로 기존의 중력에 순응하는 형태, 공간 경험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형태, 각도, 장식적 패턴이 보완되면서 탈중력적 개념을 표현한다. 또 이와 같은 이탈 개념을 바탕으로 다원적인 기하학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표현상 특정기하학의 원리를 거부하고 다양한 질서의 기하학적 구성들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연적으로 결합된 것처럼 시각적 구성을 의도한다.

이와 같이 하중의 흐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거나 구조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유형 <사진 4>은 구조와 분리된 표피가 장식적으로 조작됨으로써 구조적 의미가 상실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성적 이론에 의한 합리성의 표현보다는 감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상징성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중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불가능하며 중력의 구속력을 규정된 기준의 조작을 통해서 형태와 공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오히려 중력의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체 디자인은 공간과 그 구



<사진 4> Peter Cook, Cook's Tower, The Best of British Architecture, 1993, p.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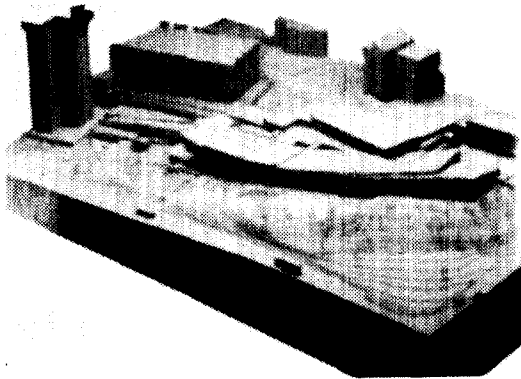
성언어 형태를 다양화하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3) 불연속적 표현

연속성이란 내적인 관련성(Internal Relation)으로 공간이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적인 연속성이며, 외적인 관련성(External Relation)으로는 실제적인 공간의 병렬을 다루는 유형학적이며 형태학적인 선행 건축과의 공간적 연속성과 건축에 대해 사회적이며 실용적인 요구를 집약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 디자인에서는 일전에 구축해 왔던 이미지로부터 변형적이거나 연속적인 전개과정을 거쳐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연속성은 '틀'로서 설명되고 틀은 행위와 시간이 주는 연속성과 변화를 규정하게 되며 이것에는 시간의 개념이 내포한다.

틀의 개념¹⁹⁾은 해체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연속적인 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을 배제하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형태적인 조작을 통해 동질적인 틀의 혼합, 중첩, 왜곡, 용해, 반복, 우연, 삽입으로 분류되어진다.²⁰⁾(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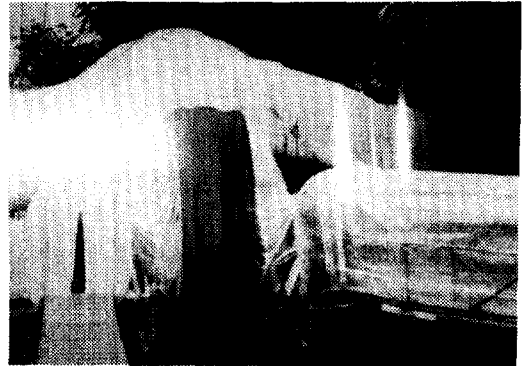
〈사진 5〉 Peter Einsenman, The Department of Art, Architecture and Planning University of Ohio, Cincinnati, Theory + Experimentation, 1993, p.202.

(4) 이접적 표현

이접(Disjunction)은 분리, 분열의 상태를 말한다. 이 개념은 극한과 방해의 아이디어로서 건축가가 어떤 부분을 종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문화적 조건과 잘 맞지 않는 것을 인정하려는 시도이다.²¹⁾

〈사진 6〉은 바닥, 천장과 벽을 반투명 비닐로서 포장하듯 처리하여 시각적으로 불투명성을 기대하는 평면으로 치환하고 있다.

이접은 종합이라는 의미를 거부하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를 중첩하거나 병치시키기 위해 사용성과 형태 사이의 전통적 대립개념을 거부하고 파편화와 중첩과 조합의 방법을 사용한다.



〈사진 6〉 Bahram Shirdel, Metapolis Masterplan for Los Angeles civic center, Theory + Experimentation, 1993.

III. 해체주의 건축의 구성형태에 따른 패션

건축,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 등에서 보이는 각 디자인 스타일에서는 사실상 일관된 설명을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의 개념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의 구조적 해체는 단지 파괴로의 개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래된 목표나 건축 외적 목적으로부터 건축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

패션에 있어서 해체주의 용어를 도입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잡지에서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이었으며 해체패션이 패션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마틴 마지엘라(Martin Margiela)에 의해 소개된 '1990년을 위한 쇼'²²⁾라는 주장과 1980년대 초반 레이 가와꾸보(Rei Kawakubo)의 작품이라는 리차드 마틴 앤 해라드 코다(Richard Martin & Harold Koda)의 주장이 있다. 특히 가와꾸보의 작품과 론 아라드(Ron Arad)의 합리적 표현에 대한 제품에서 표현된 해체적인 효과가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며²³⁾ 1993년 메트로 폴리탄 박

19) 틀은 사전적인 의미로 구성, 구축, 건축, 수립된 질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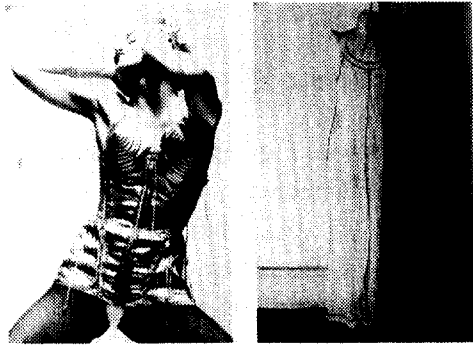
20) 이지훈, 앞의 책, p.79.

21) 이지훈, 바로위의 책, p.79.

22)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5, p.175.

물관에서 개최된 "Infra Apparel"전의 카탈로그 저자 리처드 마틴과 해로드 코다는 복식에 있어서 해체주의는 함축적인 전체로서의 현존을 부정하고 내부의 상층적인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서 파괴시키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 하였다.²⁴⁾

1990년대의 해체패션은 디자인 요소로서 해체와 쇠퇴(Deconstruction & Decay)의 모델을 찾고 있다. 현실의 권위주의적 획일성을 해체시키는 강렬한 미적 비판정신을 내포한 해체패션은 레이 가와꾸보<사진 15>,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마틴 마지엘라(Martin Magiela) <사진 7>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사진 7〉

(左) Jean Paul Gaultier, Like a Virgin 코르셋, 1990.

(右) Martin Magiela, Lining Druess, 1991.

모던디자인 비평, 1995.

1) 패션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이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장르와 양식의 개념을 비판하는 것을 주로 삼는다. 패션의 독자적 기호체계로서 패션텍스트성을 인용하여 보면 복식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1960년대의 대중예술, 행위예술의 해프닝, 환각적 시각예술의 양상과 주제들의 부상으로 패션에 있어서도 아방가르드적 요소들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듀얼리즘(Dualism)과 흑과 백 등

의 상호대립과 공존 등의 혼합된 양상을 의미있는 것들의 상징적 요소<사진 8>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사진 8〉 Gattoni, Fashion Show, 1996. 9.

(1)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으로는 이질적 소재의 혼용으로 플라스틱, 고무, 비닐, 유리, 스틸, 콘돔, 폴리우레탄의 혼합적 양상을 띄고 있다.

〈사진 9〉는 이질적 소재로서 필름(Film)을 취하고 있으며 소재의 하드하면서도 소프트한 소재의 혼용



〈사진 9〉 Romeo Gigli, Vogue(Italia), 1996. 3.

23)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p.38~39.

24)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 Apparel,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Distributed by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93.

은 이질성, 의외성을 발현시키고 있다. 이로서 물질적 요소의 구성적 해체와 공간의 해체로 파괴적 요소를 띄고 있다.

(2) 아이템의 혼용

아이템의 혼용은 코오디네이션의 구성상 아이템으로서의 부속품들이 주된 의복으로 상호치환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사진 10〉 Givenchy, Vogue(Italia), 1996, 5.

〈사진 10〉은 우산이라는 아이템을 모자로서 또는 머플러로서 대치시키며 부드러운 소재의 날림의 효과는 시간적, 공간적 차연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각 오브제의 의미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내고 있다.

(3) 믹싱모드

믹싱모드는 꾸뜨르와 거리패션의 상호인용(사진 11)을 통해 전혀 엉뚱한 것이 패션으로 대치되는 상황으로서 기존의 사고를 무너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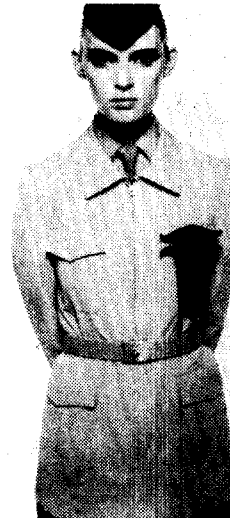
어떠한 고정화된 스타일을 고집하기 보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꾸뜨르와 거리패션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하위패션이 캐워크(Cat Walk)로서 대체되는 것은 극단적 반대급부를 궁극에는 하나로 통하게 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성의 혼합

성의 혼합은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의 관념적 패션을 거부하고 문화적 성(Gender)으로서 성에 대한 시각을 해체하여 제 3의 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11〉 Chanel, Vogue, 1995. 3.



〈사진 12〉 DKNY, Vogue(Italia), 199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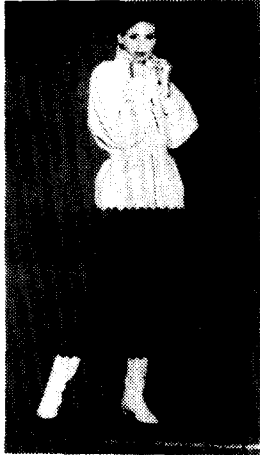
〈사진 12〉는 여성복에 남성적 요소가 가장 잘 부각되는 군복을 수용함으로써 듀얼리즘(Dualism)적 요소를 띄고 있으며 이는 극단적 텍스트의 편중 없이 텍스트 사이의 공간(Intertextual Space)을 나타내는 병행인용을 표현하고 있다.

2) 패션에 나타난 차연과 혼적

(1) 차연으로서의 패션

차연은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끊임없이 분리되며 새롭게 다시 결합하면

서 로고스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있다. 이는 시·공간
의 초월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차이와 같음, 생과
멸, 의미와 무의미, 정신과 육체의 총체적 통합을 의
미한다.



〈사진 13〉 Enka(Viscose)광고, Vogue(Italia), 1995. 10.

〈사진 13〉은 불변이나 항구성과 같은 의미를 제
거하고 어떠한 의미로부터 자유롭고도 초월적 현상
을 내포할 뿐 아니라 공간적 대체로서 환상적이면서
형태의 유희를 보여주고 있다.

(2) 혼적으로서의 패션

의미의 어떠한 기호는 현전과 부재와의 끊임 없는
교차이다. 즉, 어떠한 기호는 무한히 또 다른 기호로
인도하며 이끌어진다. 이것은 역사성으로 말해질 수
있으며 어떠한 공간에 시간적 거리를 넘어 공간적으
로 존재함을 말하며 동일한 공간에서 기억의 단편으
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 14〉는 르네상스의 건축적 양식을 의복에 재
현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현실적으로 묘사
함으로써 시간적 공간화 또는 공간적 시간화를 표현
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개체로서 가치의 무경
계성, 문화의 무경계성 등의 다중성을 내포하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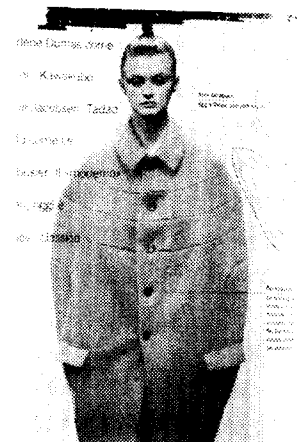
〈사진 14〉 Chignon, Vogue (Italia), 1995. 4.

3) 패션에 나타난 DIS와 DE

(1) 탈구성적 표현

탈구성의 관점은 어떤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출발
하여 오브제의 통일이 아닌 개념으로의 진행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일상적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말한다.

〈사진 15〉은 의복의 소매를 제거시킴으로서 기존
의 인체 구성형태의 질서를 파괴하여 비구조적 실루
엣으로서 비논리적이며 상대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는
불확정성의 세계관을 보이고 있다.



〈사진 15〉 Rei Kawakubo, Vogue(Italia), 1995. 7.

(2) 탈중심, 탈중력적 표현

탈중심과 탈중력은 기존의 관념을 깨는 것으로서 중력이라는 고전적 규범에 대한 열린사고이다.



〈사진 16〉 Krizia, Vogue(Italia), 1994. 10

〈사진 16〉은 선과 공간의 형태와 방향의 느낌이 수직적 구조와는 반대되는 은유적 표현으로 기존의 중력에 역행하는 공간경험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패션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분석을 뜻한다 할 것이다.

(3) 불연속적 표현

불연속적 표현으로서의 중첩은 형태의 창작요소로서 여러 층이 겹쳐있는 상태를 말하며 회화적으로는 플라쥬라 한다. 중첩의 요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적요소로서의 축인데 축의 중합은 면이나 공간의 중첩을 포함하며 면과 공간의 중첩은 축의 중합이나 치환의 결과로 인식된다.²⁵⁾

〈사진 17〉은 중첩의 과정을 통해 각각의 원형과 다른 형태 즉, 의미로서의 새로운 미로 창조되고 의미가 혼합되어 나타나 있다. 즉, 혼합, 중첩, 반복을 통해 불연속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4) 이접적 표현

이접적 표현은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의복의 완전성으로부터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18〉은 패드의 기능적 측면이 형식적 구성의 중첩과 병치로서



〈사진 17〉 Richard Tailor, Fashion World, 1990.



〈사진 18〉 Amaya Arzuaga,
Collection 96~97 Autumn & Winter.

본래의 기능적 측면과 형태 사이에서 전통의 형식을 거부함으로써 분석적인 창조의 기반이 되고 있다.

IV. 결론

서구의 이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본질주의 또는 무정부주의적인 의미적 해방 또는 의미의 부재라는 비평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해체주의 철학의 의미가 디자인이나 건축, 패션 등에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

25) 남형우, 앞의 책, p.9.

으며 이러한 요소는 20세기말의 양식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해체주의 이론은 건축과 연결되어 강화됨으로서 더욱 해체적으로 되었으며 해체이론 중 건축으로부터의 패션적 치환을 통하여 해체주의 건축적 요소의 창조적 독창성으로 해체주의 패션에서의 디자인의 과격을 가져 왔다.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구성은 상호텍스트성, 차연과 혼적, DIS와 DE의 작업화로 나타나며 이것들이 패션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소재의 상호텍스트성, 아이템의 혼용, 모드의 혼합, 성의 혼성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에 나타난 차연과 혼적은 환상적이고 유희적이며 또한 역사성으로 존재되어진다. 패션에 있어서의 DE와 DIS는 비구조적 실루엣과 은유적 표현을 통해 중력의 역행을 보이고 있으며 불연속적 표현으로는 면이나 공간의 중첩뿐 아니라 혼합, 반복을 통한 구성으로, 또한 이접적 표현으로는 기능적 측면이 형식적 구성의 양면성으로 상호병치와 치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호 유기적 상관관계 속에서 제반현상을 포괄하여 '포스트-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다양한 사유(思惟)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론은 문화일반에 파급되어 나타남으로서 수평적 사고 즉, 열려진 사고로서 새로운 이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체주의라는 종말론적이며 세기말적 현상을 패션에 수용하면서 대두되는 여러 양태들을 여타 체계나 사조 등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철학적, 사회적 접근과 모색이 후행연구에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5.
- 2) 김형효, 테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 3) 이광래 편,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 4) 宮川英二, 문석창 역, 건축적 공간, 지문당, 1987.
- 5) Bruno zevi on Modern Architecture, Andrea Oppenheimer Dean, 김관기 역, 대건당, 1992.
- 6) penny sparke, 현대디자인의 전개, 미진사, 1994.
- 7) Philip Johnson & Mark Wigley, 해체주의 건축, 도서출판 전일, 1991.
- 8) 김원갑, 현대건축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1.
- 9) 남형우,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0) 변계성,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1)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2) 서윤주, 해체주의 건축의 철학적 수용과 체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1.
- 13) 조진일,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92.
- 14)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15)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5.
- 16) C. Jenks, The Pleasure If Absence, Deconstruc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9.
- 17) Catherine cooke & Andrew Benjamin, Deconstruction, Rizzoli, New York, 1989.
- 18) Noel Moffette, The Best of British Architecture 1980~2000, E & FN Spon, London, 1993.
- 19) Richard Martin & Harold Koda, Infra Apparel,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Distribute by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93.
- 20) Theory + Experimentation, Andeas Papadakis Presents, Academy Editions, London, 1993.